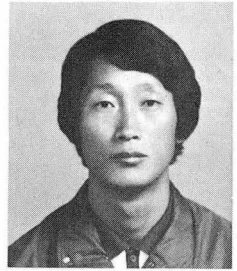


우리 모두 자조금제도 동의서 취합에 동참합시다



성 정 표

(본회 자조금제도추진위원장)

전국에 계신 양돈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화시대, 개방화시대의 거대한 전환기적 술렁임에 휩싸여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농업투자의 빈약과 농업정책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농업의 채산성은 날로 떨어져 왔으며, 농민은 고령화 되고 젊은이는 농촌을 떠났으며, 농촌에서 애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시장환경에 별거승이로 내던져진 우리 농업인은 생존을 부지할 좌표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겹게 버티고 계신 양돈인 여러분!

우리의 양돈산업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경영합리화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과 국제적인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길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양돈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경쟁상대국들과 비교해 볼때 우선 호당 사육규모가 영국 264두, 덴마크 206, 일본 174두, 대만 102두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겨우 18두에 불과합니다. 이로 말미암은 전문성의 빈약과 상대적으로 사육호수의 과다로 인한 생산자 조직으로의 흡수 및 연계성의 문제점, 그리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유통구조 및 시설환경, 배합사료 제조업에 관한 개선점, 축산폐수에 관한 대책, 공포의 질병인 오제스키병의 방역대책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앓은채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수입쇠고기 무제한 저가 방출로 인한 돼지고기의 수요 잠식은 우리에게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값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여 방출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판매정책은 그 여파가 돼지고기의 수요까지 잠식하여 양돈불황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년도 수입쇠고기 계획량인 4만톤의 84%가 상반기중에 판매되는 개가를 올리므로 해서 국내 소값은 마리당 수십만원이 떨어지고, 돼지 시세는 더욱 하락일로를 걷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반기에 다시 2만톤의 추가수입을 발표하고 있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돈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에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학자들을 배제하고 재미교포인 이상구라는 안식일교 신자를 불러다가 포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시청률이 가

장높은 황금시간에 무려 10차례나 방영함으로 해서, 마치 어느해 여름의 횃집 모양으로 수요는 격감하고 육류를 즐겨찾던 고객들의 발길은 급기야 끊기고 말았습니다.이러할때, 양돈협회에서는 방 송국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소비의 원상회복을 위해 몇 차례의 프로그램을 방영토록 했지만 적은 성과에 그치고 말았으며, 소비자들은 육류를 줄여서 먹는 형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수입자유화가 된 돼지고기 통조림은 2년만에 국내통조림 소비량의 30% 나 차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돼지고기 통 조림은 국내 제품에 비해 거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원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들의 돼지고기로 만든 통조림이 어째서 동종의 국산 제품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지도 우리는 조사해 봐야 합니다.

중국 사람은 육류 소비량의 90%가 돼지고기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건강하며 장수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돼지고기의 이러한 우수 성을 우리는 연구해서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소비계층을 지키고 또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생존 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조직도 필요하고, 조직을 움직일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재원이 없거나 부족해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양돈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우리가 생산한 돼지고기의 소비를 위한 연구·조사 및 홍보활동 에 필요한 재원을 어느 일부의 양돈인이나 일부 지역의 양돈인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 업의 효과는 전체 양돈인의 사업량에 비례하여 돌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적은 동전 한 닢씩 모으는 일을 모든 양돈인은 자기 사업량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분담할 의무가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양돈업에 있어서 자조금제도를 입법화하려고 준비해 왔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건이 성숙되는 축종부터 자조금제도를 실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조금제도를 우리가 청원해서 국회에서 입법화하는데는 전체 양돈인의 절대다수가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입법을 절대다수가 찬성을 한다는 우리의 뜻이 자료로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조금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양돈인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들의 생존업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목표의 절반정도 밖에는 동의서가 취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양돈업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조금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동의서 취합에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빠 르면 내년부터는 자진 납부한 자조금으로 우리의 생업을 보호·육성·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데 더욱 활기를 띠어 양돈산업을 분명 성장산업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조금 제도의 입법화에 관한 동의서 취합에 적극 동참합시다. **■**